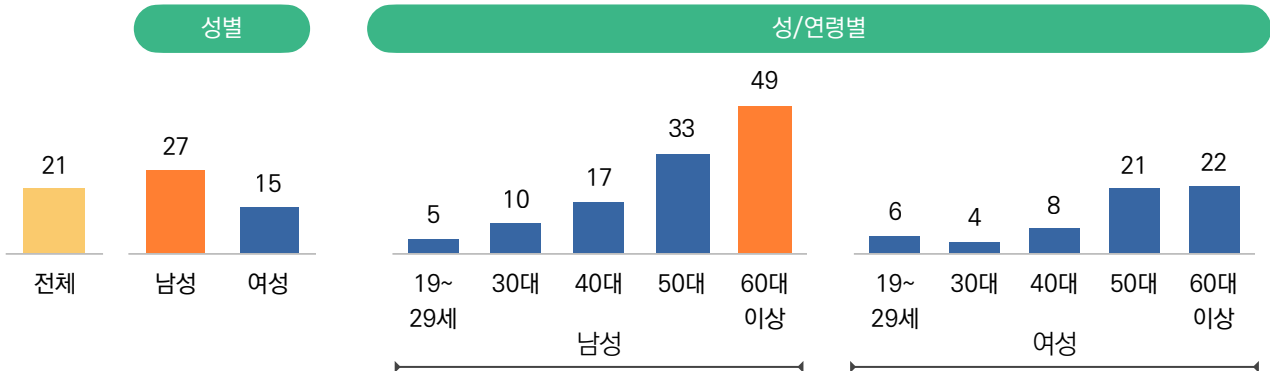




## [탈모 실태 및 인식] 60대 남성의 절반, 탈모 증상 겪고 있다!

- 한국의 탈모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? 대한탈모치료학회 등에서는 국내 탈모 인구를 1,000만 명 정도(약 20%)로 추산하는데, 최근 한국갤럽의 탈모 관련 조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
- 현재 탈모 증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21%가 ‘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’고 응답했다.
- 성별로는 ‘남성’(27%)이 ‘여성’(15%)보다 탈모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고, 특히 ‘60대 이상 남성’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49%가 현재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현재 탈모 증상 여부 ('탈모 증상 겪고 있다' 비율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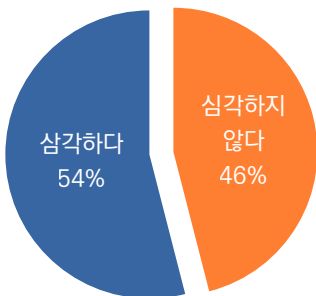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갤럽, 탈모(脫毛) 관련 조사 - 2013/2019/2025년(갤럽리포트), 2026.01.2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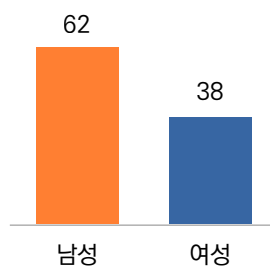
## 탈모인 절반 이상, 내 탈모 증상 심각하다!

- 탈모인들에게 본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묻은 결과, 절반 이상(54%)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
-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탈모인의 경우 62%가 자신의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, 여성(38%)에 비해 탈모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훨씬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.

[그림] 탈모 증상 심각성 인식\* (탈모인)



[그림] 성별 탈모 증상 '심각하다' 인식 비율 (탈모인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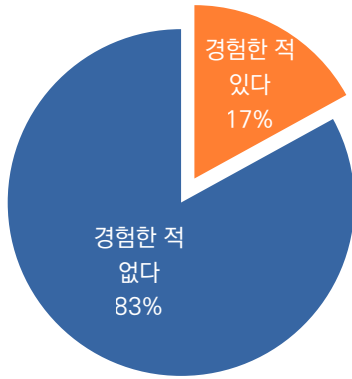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갤럽, 탈모(脫毛) 관련 조사 - 2013/2019/2025년(갤럽리포트), 2026.01.29.

\*4점 척도

## 탈모인 6명 중 1명, 탈모로 우울감·대인 기피 등 심리적 문제 겪어!

- 탈모인들에게 탈모 증상 때문에 자신감 저하, 우울감, 대인 기피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, 탈모인의 17%인 6명 중 1명가량은 ‘탈모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’고 응답했다.
- 이는 탈모가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.

[그림] 탈모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경험 여부 (탈모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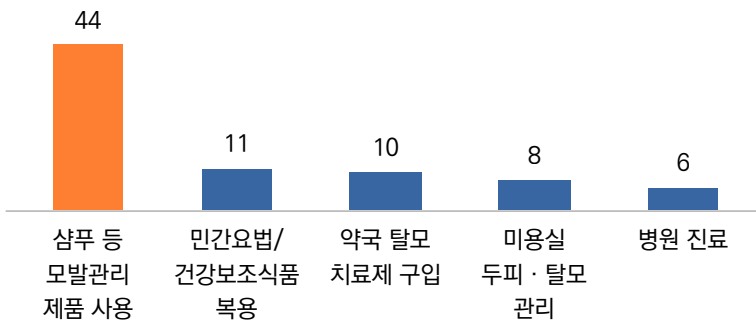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갤럽, 탈모(脫毛) 관련 조사 - 2013/2019/2025년(갤럽리포트), 2026.01.29.

## 탈모 증상 완화 방법, ‘샴푸 등 모발관리 제품 사용(44%)’ 가장 많아!

- 탈모인들이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해 취한 방법(복수응답)으로는 ‘샴푸 등 모발 관리 제품 사용’(44%)이 가장 많았고, 이어 ‘민간요법/건강보조식품 복용’(11%), ‘약국 탈모 치료제 구입’(10%)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 (탈모인, 복수응답, 상위 5개, %)



※출처 : 한국갤럽, 탈모(脫毛) 관련 조사 - 2013/2019/2025년(갤럽리포트), 2026.01.29.